제시문 (가)와 (나)는 '낭비'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가)는 낭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다. 반면 제시문 (나)는 낭비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로 여긴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낭비란, 자신의 활력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소모하려는 도락의 발현이다. 도락의 발현이란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활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이러한 도락의 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인간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락의 발현은 인간이 임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쩔 수가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제시문 (나)는 벽돌쌓기의 예를 들어 낭비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긴다. 프랭크 길브레스라는 과학자는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의 활력을 소비하면서 벽돌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는 벽돌공들이 양발을 각각 디뎌야 할 위치에서부터 반죽의 농도까지 통제하였다. 그 결과 벽돌공은 자신에게 편한 빠른 자세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선택을 위한 기억들은 원근 단축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원근 단축이란 어떠한 기억속의 일을 떠올려야할 때 그때의 시간과 현재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망각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이에 대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여긴다. 우리가 망각하려고 하여도, 어느 날 무의식중으로 기억을 해내고자하는 도락의 발현을 통해 망각에 실패할 수도 있다. 정신적인 경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근 단축을 통해 기억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제시문 (나)는 원근 단축을 통한 기억의 통제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여긴다. 일시적으로라도 망각을 한다면 이는 기억을 건강하게 하고 살아있게 할 수 있다. 회상하고자하는 기억에 도달하기까지의 기억의 낭비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원근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억의 회상은 불가능할 것이다.